

책과 글쓰기, 그리고 컴퓨터

이삼성

가톨릭대 교수 · 국제학부

책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세계와 역사를 접하는 것이다. 적어도 나에겐 주어진 존재의 한계를 뛰어넘어 더 넓고 먼 세계에 다가가려는 갈증과 동경의 표현이다. 특히 어린 시절, 무한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킨 책이란 강렬한 종이의 향내이기도 했다.

전자정보매체가 발달하면서 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많이 변했다. 인터넷에 접속하고 글 쓰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하지만 나의 이상은 조용한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역사와 철학을 읽는 것이다. 인터넷의 잡다한 현재진행형의 정보들을 접하는 것도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것도 내가 바라는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유학생활이 시작된 1983년부터 글 쓰는 작업은 언제나 워드프로세서로 했다. 귀국한 후에는 한글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는데 자연스럽게 길들여졌다. 문학을 하건 학문을 하건간에 만년필로 글 쓰는 사람을 보면 부러운 생각이 든다. 나도 이제부터 만년필이나 볼펜으로만 쓰겠다. 그래야만 글도 압축적이고 더 성실해질 것이라 결심해 보지만 막상 실천에 옮기지는 못한다. 이 짧은 글을 쓰면서도 나는 별수없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 원래 계획은 내 조그만 아파트 근처에 있는 작은 커피숍 '우체국이 보이는 창가' 또는 '헤세드'에서 만년필이나 볼펜으로 쓰는 것이었다. 결국 찾집이 문을 열지 않는 이른 새벽에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 나의 이상과 현실은 이 순간에도 모순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정보를 접하고 글을 쓰는 과정에서 기계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두가지다. 하나는 컴퓨터의 모든 기능을 갖되 손가락만큼 작으면서도 고장의 염려가 없는, 일종의 초컴퓨터의 대중화를 기대하는 일이다. 다른 하나는 세상의 흐름을 도도하게 거부하면서 전자장비 자체에 의존하지 않는 길이다. 그런데 나처럼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글을 써야 하는 사람의 경우 후자를 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과학기술문명이 배태한 문제들을 과학이 풀어낼 때까지 무력하게 기다리는 수밖에는 도리가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기계에 의존하는 불가피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의 부작용이 과학기술 자체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초컴퓨터의 대중화가 내 생전은 물론, 먼 미래에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기술의 발전을 못 믿어서가 아니다. 문제는 같은 공간에 보다 많고 복잡한 기능을 담으려는 인간의 욕구가 더 급속히 팽창돼 왔다는 사실이다.

기계에 의존하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컴퓨터의 워드프로세서 앞에 앉아 있는 것은 그것이 가진 편리한 편집과 프린트 기능 때문이다. 그러나 미래에는 단순히 내 생각을 편집하고 인쇄하는 기능을 맡기는 데 그치지 않고 컴퓨터에게 내 대신 생각해줄 것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컴퓨터에 의존해서 더 많은 '생각'을 생산해낼 때 나만 그 기능을 거부하기 힘들 것이다. 그만큼 컴퓨터의 크기와 복잡성, 그로 인한 고장의 가능성과 수리를 위한 A/S 센터의 필요성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과학기술이 갖는 어떤 신비스런 속성 때문이 아니라, 결국 무한한 인간욕망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강한 펄프내음과 함께 보이지 않는 무한한 영상들을 떠올리며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좋은 '책'의 필요성은 오늘 모습 그대로 우리 곁에 남게 될 것이다. ❖

포지 인터뷰	2	세계문학사 다시 쓰는 인문학문의 설계자 《중세문학의 재인식》(전3권) 펴낸 조동일 교수
출판시론	4	독서프로그램, 왜 천덕꾸러기인가 - 정길화 출판과 방송의 동상이몽
얼굴	5	'전국민 책임기 운동' 추진위원장 맡은 신현웅 문화부 차관
특집/중세	6	소설의 타임머신을 타고 찾아간 중세/문학 7 역동의 시대 중세의 논쟁 8 삶의 총체성 향한 열망 보여주는 서양중세/문명과 생활 9 사각지대에 버려졌던 동양의 중세
	10	중세유럽의 서적, 그 상징적인 토포스/책·독서 - 이광주
	11	미지의 세계를 밝는 즐거움 - 최애리
	12	암흑기에도 새로운 과학지식의 물결이/과학 - 송상용
	13	흘러가는 역사 속에 빛나는 중세/역사 - 홍성표
출판화제	14	행복한 가정, 이젠 환상인가? 15 두께는 얇아지고, 밀도는 높아지고
특별 에세이	16	나에게 불교를 알게 한 책 진월스님/호진스님/인권환
출판가	18	개성이 톡톡 튀는 출판사 이름
서점가	19	한잔의 차와 함께 하는 독서삼매경
기획	20	활짝 핀 어린이책의 춘추시대 - 이재철
출판계 소식	21	한국출판인회의 세미나 개최 · 외
특별기획	22	21세기에도 빛날 20세기의 고전 7 외국사회학편 - 신광영
가상대담	24	사물의 철학자 들뢰즈와의 대화 - 이정우
만화	25	책과 오과장 - 박시백
마케팅 캠프	26	중·저가 시리즈로 대중시장 공략을 - 한기호
출판광고 클리닉	27	1318세대엔 애정을, 답사 이벤트로 교감을 - 마정미
이 책 그 사람	28	《천리도망은 해도 팔자도망은 못한다더니》 펴낸 신봉선 여사 《개나리 아저씨》 펴낸 정동영씨
	29	《자아와 자유》 펴낸 엄정식 교수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아 이야기》 펴낸 우갑선씨
서평	30	비서 《키를 야스퍼스》 - 박찬국 임지현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 박찬승
	31	김동춘 외 《자유라는 화두》 - 노중기
	32	장운필화 《여성·몸·성》 - 이경미 윌스 《진화의 미래》 - 양서영
	33	정끝별 《천개의 혀를 가진 시의 언어》 - 이희중
	34	새책 속으로 / 38 새로 나온 책
	48	독서퍼즐